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다! 직원들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하고 지금 당장 이행하라! 투쟁승리!

# 투쟁속보

총파업6일차

2021년 9월 7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원장님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 - 고대의료원 직원들의 피맺힌 응어리를 풀어주십시오.

9월 2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벌써 7일째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노정교섭이 9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대다수 병원에서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에서는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학병원 중 수익은 최고이지만, 임금과 노동조건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투자하지 않고 건물건립과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의료수익이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건립, 청담동 검진센터 건립, 과천 제4병원 추진 등 병원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료원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 인력이 부족해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 방광염에 걸리며 일하는 고대의료원
- 밥 먹을 시간이 없어 한 달 동안 직원식당에서 먹은 식사가 고작 한 끼밖에 안 되는 고대의료원
- 매년 신규간호사의 50%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고대의료원
- 퇴직한 자리에 인력을 채워주지 않고 살인적인 업무량을 견디라는 고대의료원
-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1700명! 대학병원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고대의료원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 “건물과 시설에만 투자하지 말고 직원에게 투자하라”**

**이것이 고대의료원 직원들의 절절한 요구이고 피맺힌 호소입니다.**

병원의 성장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야 할 직원들이 절망하며 떠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고대의료원 직원들이 오죽하면 “이대로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하겠습니까?

김영훈 의료원장님께 묻습니다.

- 저희들은 적정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인력갈아넣기식 경영, 직원 쥐어짜기식 경영을 계속 하실 겁니까?
- 저희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작년에 1,000억 원 이상의 의료이익이 났는데도 임금동결하고, 올해 또다시 직원에게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실 겁니까?

의료원장님은 담화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며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진정성 있는 대화입니까?
- 하루라도 빨리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교섭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문자를 보내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노동조합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성실교섭입니까?

노동조합의 요구는 너무나 절박하고 정당합니다.

- 너무 힘들어 울며 떠나지 않도록 적정 인력을 확충하라!
- 눈부신 고대의료원 성장의 주역인 직원에게 정당한 임금인상을 하라!
- 대학병원 중 최대규모인 1,7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구조 개선 노사 TFT를 통해 현장문제 해결하라!
- 간호사 교대근무 개선을 위한 노사 TFT를 통해 현장문제 해결하라!

의료원장님!

고대의료원을 찾는 많은 환자분이 걱정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대의료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장님이 파업 사태를 풀어야 합니다. 결

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고대의료원의 내부 문제들이 더욱 사회쟁점화되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의료원장님은 어디에서 해법을 찾고 계십니까?

오래 일하고 싶은 꿈 대신 빨리 사직하고 싶은 꿈을 품고 일하는 직원들의 절규를

가슴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고대의료원 직원들의 불만과 분노가 파업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을 쥐어짜는 병원경영,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조직문화, 노조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노사문화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법 모색 대신에 파업을 막기위한 임시방편식 대응은 굶은 부위를 잠시 덮어 놓을 뿐 현장의 더 큰 분노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고대의료원은 바뀌어야 합니다. 굶은 부위는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고대의료원 직원들의 파업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입니다.

고대의료원 직원들의 피맺힌 응어리를 풀고, 하루빨리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해법을 들고 빨리 교섭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2021년 9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3,700여 조합원 일동**